

‘희망’ 2015 신년 인터뷰

⑥ 광주 U대회 성공 개최 혼신-조직위원장 김형식 前 총리

“시민·市·정부 삼박자 조화가 성공 관건”

지난 2013년 2월26일 퇴임했던 김형식 전 국무총리가 고향발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법관, 감사원장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오르는 등 공직자로서 최고의 길을 걸었다.

특히 그는 정일권(6년7개월), 김종필(6년1개월), 최규하(3년10개월) 전 총리에 이어 4번째(2년 5개월) 장수 총리이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렸다. 또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광주·전남지역 출신 총리이기도 했다. 광주U대회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광주U대회 준비 상황을 들었다.

대답=박지경 서울취재본부 차장

- 총리 퇴임 전날에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2년여만이다. 이후 어떻게 지냈나.

▲퇴임 후 5월1일 독일로 가서 6개월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갔었다. 지난해 9월부터 광주U대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 올 1월부터 (사)한독동문네트워크 이사장을 맡아서 한독교류협력을 위해 일하고 있다.

- 요즘 일과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에 법률사무실을 겸하는 개인사무실을 내서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있다. 거기서 일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있다. 광주대회와 관련해 정부·언론·문화·체육계 인사를 만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 지난해는 김 위원장에게 어떤 해였나.

▲독일서 배우고 연구한 것을 우리 사회에 전파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한 해였다. 특강과 조언에 응하면서 보람있는 해를 보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뜻하지 않게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참여했다. 그 경험은 별다른 세계를 여행한 느낌을 받았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다.

-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뤘고 유럽통합의 주역이었으며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 독일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 원동력은 정치에 있다. 대화·타협하고 화해·절충하는 정치에서 힘이 생긴다. 집중 없이 분산된 권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힘이 생긴다. 극한 대립의 우리 정치는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도 잘 검토하고 교훈 삼아야 한다.

- 2015년은 본인에게 어떤 해가 될까.

▲올해는 고향에서 호반 최종, 최대의 국제행사가 열린다. 그것을 성공시키고 광주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하는 해가 될 것이다. 또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발전할지 고민하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정리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 광주U대회의 컨셉은.

▲친환경(Eco)·평화(Peace)·기술(IT)·문화(Culture)의 각 단어 첫글자를 조합한 ‘EPIC’은 광주U대



프로필 ▲1948년 장성 출생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졸업 ▲1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형사지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대법관 ▲21대 감사원장 ▲41대 국무총리

만의 문화를 전세계에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모범 대회, 안전한 대회, 광주를 도약시키는 대회가 돼야 한다.

- 광주U대회는 흑자 운영이 목표다. 너무 초라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여타 국제대회에서 보듯, 치르고 나서 국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광주U대회는 소박하지만 내용은 알찬, 내실 있는 대회로 만들 것이다. 박명성 감독이 ‘예산 많다고 성공하는 것 아니다’고 하더라. ‘선택과 집중’ 예산 투입으로 성공적 대회를 만들 것이다.

- 자원봉사자 관리가 대회 성공 요소 중 하나인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세계대회에 걸맞는 자질 있는 자원봉사자로 10개 분야 30개 직종 1만5000여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012년부터 모집했다.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기본·직무·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3월에는 리더 자원봉사자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지원요원을 단계적으로 현장 배치한다. 아울러 주요 경기장이 완공되는 4월부터는 실전에 가까운 테스트이벤트 등을 통해 현장운영 능력을 높여갈 것이다.

- 인천 아시안게임의 실패는 정부·지자체·조직위의 엇박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광주U대회는 어떤가.

▲인천대회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광주U대회 성공을 위해서 시와 시민의 협조는 물론 시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잘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적극 지원의지를 갖고 있다. 엇박자로 인한 차질을 없애 것이다.

- 남북 단일팀은 대회 흥행은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광주U대회는 세계 평화를 물론 남북화해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 방법으로 남북단일팀 구성, 북을 원단 파견, 북한의 성화봉송 참여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국제 정세와 정부 차원의 남북관계와 연계돼 있다. 조직위 뜻으로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남북화해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국제기구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 대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

▲술직히 재정적 어려움이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문제다. 마케팅을 통해 대기업 후원사의 협조를 받을 것이다. 또 어려운 점은 가치있고 의미있는 대회라는 홍보가 널리 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홍보가 잘 돼야 전 국민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대회 준비와 본 대회에서 광주시민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교통 등 기초질서 지키기로 모범시민 모습을 보여주고, 웃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 자원봉사로 헌신하고 경기장에 많이 와서 응원해 주셔야 한다. 특히 아주 어려운 국가에서 온 선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ikpark@kwangju.co.kr

광주시 “4+2로” 시의회 “4+4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의 첫날 범위 놓고 힘 겨루기

광주시와 시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범위를 놓고 협의 첫날부터 힘겨루기가 팽팽했다. 시는 공사·공단 4곳에

출자·출연기관 2곳만 추가하지는 반면 시의회는 시가 지목한 4곳에 4곳을 추가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19일 인사청문회 대상과 검증범위, 운영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

이는 운영현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데다 시의회의 출구장 요구 등에 힘입어 발빠르게 진행됐다.

시는 이날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등 공사·공단 등 4곳에 출자·출연기관 2곳만을 추가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시의회는 서로 이견이 없는 공사·공단 4곳 이외에 시가 제시한 출연기관 2곳에다 빛고을재단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양측의 이견으로 20일 오후 다시 열기로 했다.

시는 현재 인사청문회를 하는 지자체 가운데 대상이 가장 많은 곳이 6곳(경기도)인 데다 지자체 규모 등을 감안하면 6곳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는 출연기관 10곳 중 6곳을 양보한 대신 4곳만을 추가하는 것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정문시와 검증범위, 운영방식 등은 애초 시의회 의견대로 합의했다.

청문 범위는 도덕성 및 능력 검증까지 포함됐으며, 운영 방식은 9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주관한다. 인사청문 진행 과정은 시가 시의회에 청문요청을 해오면 내정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청문 및 경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 의결 뒤 시장에 송부한다.

한편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은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며 대상과 범위, 방식 등은 차이가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인사청문회 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며 “다음 달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공모부터 청문회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안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시의회안, 광주시안, 비고. Rows include 청문주관, 시행근거, 청문대상, 청문시기, 청문범위, 운영방식, 운영방식.

전남 자금 年 16조~18조원 역외유출

도내 총생산 30% 가까이 빠져나가...유입은 2조원 불과

전남도 지역 외 자금 유출 규모가 연간 16조~18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유통업체, 대기업 지사 등 기업 이윤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소득은 2010년 15조8000억원, 2011년 18조원, 2012년 16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소득 유입 상위지역은 서울(64조2000억원), 경기(32조5000억원), 부산(10조4000억원), 대전(3조9000억원) 순이었고, 전남은 2조원 가량에 불과했다.

지난 2011~2013년 사이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이 61조1000억원에서 64조6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출 규모

는 지역 내 총생산의 4분의1 이상을 차지한다.

전남도 내 근로자의 급여, 기업 이윤 등 요소소득은 지난 2010년 17조4000억원, 2011년 19조5000억원, 2012년 18조6000억원 등이 유출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금 등 재산소득은 각각 1조6000억원, 1조5000억원, 1조8000억원 등이 유입됐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소득이 유출된 지역은 충남으로 24조6000억원 규모였으며, 다음은 전남, 경북(15조4000억원), 경남(14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이는 통계청의 수치를 이용해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이며, 지역 소득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naTour featuring London Stock Exchange, HNT logo, and various travel packages like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리치투어', '가람여행사수원점', '세정투어여행사', and '웨딩&허니문 박람회'.